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Ego)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아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며 일평생 내가(self, ego) 죽는 연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태도가 옳은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중요시 합니다.

빌립보서 4 :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¹³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eth me.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마태 복음 26:39 을 읽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 대해 말해 보시오.

마태복음 26 : 39

<기도(Prayer) 안에 있는 나>

기도(Prayer) 안에도 ‘내가 ‘ 있습니까?

마가복음 11 : 24

Mark 11: 24-25 (NIV)

²⁴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기에도 여전히 내가 있습니까?

<자아의 정의>

자아의의는 라틴어로 ego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 또는 나로 체험되는 인간 성격의 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지각, 사고, 평가, 계획 같은 심리 작용을 지배한다”¹ 즉 모든 판단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을 미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보십시오.

마 16:24

¹. 기독교대백과사전 ‘자아’에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타락한 아담으로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판단의 주체로서 자아는 죽으면 안됩니다. 판단의 주체인 자아는 살아야 합니다.
주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나를 분석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 나는 옛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 나는 새사람

자아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옛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자아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새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새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새로운 자아는 있어야
하며, 기독교인의 삶은 새로운 자아-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사는 것이지, 내가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내가 죽는 것을 연습하며 그 것을 목표로 하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변화된 새로운 인격의 나-속사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 :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새로운 자아로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나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바울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로마서 6 : 8

옛사람이 죽고 난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두가지 사실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2 : 20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나의 확립>

빌립보서 4 :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같은' 하나가 된 나입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은 본질상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인격상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은 인격이 된 나, 하나의 인격이 된 나' 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입니다. 성령과 같은 하나의 인격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된 것, 다시 말하면 둘째 사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 5:22

베드로 사도는 둘째 사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1 : 4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인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보시오.

둘째 사람의 인격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 : 47

둘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인격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 : 49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 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